

Theme Analysis

10월 20일 뉴스 종합 정리

제목	주요 내용
10.19 금융안정 종합대책 발표	은행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에서부터 300억달러 유동성공급, 주식-채권형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기업은행에 1조 출자로 중소기업 대출여력 확대.
증시안정대책..정말 `안정`될까	한국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시장불안 극복 방안 및 펀드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외화-원화 유동성 동시 공급..`경색` 풀리나	한국 정부가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지급보증자로 나서기로 것은 국내외 신용경색으로 말라붙어버린 은행권 달러차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것. 이번 조치로 국내 은행들은 자체적인 신용도가 아닌 국가 신뢰도를 내걸고 해외차입에 나설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철저한 수요 우위 장세를 보여왔던 국내 외환시장내 쏠림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휘발유값, 6개월 만에 1,600원대	휘발유값이 약 6개월 만에 1,600원대로 내림. 이는 WTI기준 국제유가가 71.85달러까지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北, 내일 중대발표"..정부 사실여부 확인중	북한이 오는 20일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 AP통신이 19일 보도. 일본 정부는 북한의 중대 발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또는 쿠데타에 의한 정권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 보도.
한국관련펀드, 12주째 자금 이탈.. 규모도 확대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관련펀드에서 지난주(9~15일) 91억6,000만달러의 자금이 유출. 한주전(2~8일) 68억3,000만달러가 빠져나간데 이어 유출규모가 더 커짐.
중국 '농지임대·토지경작권 양도' 허용	중국이 농지 임대와 토지경작권 양도를 허용하겠다고 공식 선언.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개혁 발전에 관한 중대문제' 문건이 통과됐다고 보도.
日경제 7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우려	실질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2001년 이후 7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고 닷케이신문은 보도.
국제 금융위기.....긴급 자금지원 잇달아	네덜란드 정부가 세계적인 은행인 ING에 100유로의 구제금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 아이슬란드와 헝가리, 우크라이나가 이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IMF는 이번 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긴급융자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임. 파키스탄도 IMF에 구제금융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충격이 계속 확산.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